

<http://dx.doi.org/10.17703/JCCT.2016.2.1.71>

JCCT 2016-2-6

일제강점기 서서핑 간호선교사의 삶과 간호

Nursing Missionary Elizabeth J. Shepping's Life of Care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윤매옥*

Yoon, Me Ok*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not success, but service)'로 대변될 수 있는 서서핑선교사의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고 특히 일제강점기동안 일생을 간호선교사로 살았던 그의 희생적 삶의 발자취를 고찰하기 위함이다. 내용구성은 첫째로 서서핑선교사의 삶에 대한 개요를, 둘째로 서서핑간호선교사에 대한 이해와 간호선교를 고찰하고, 셋째로 사랑과 섬김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생명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간호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일제강점기, 간호선교사, 삶, 간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ll on better understanding and having interest in Shepping(1880~1934)'s life and nursing missionary work which are represented in 'Not success, but service' and especially to review the course of her sacrificial life as a nursing missionary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structure of the contents is as follows: First, the outline of Shepping's missionary life is described. Second, understanding of her nursing missionary work and nursing missionary work is reviewed in detail. Third, future directions of nursing education that puts its core value on human life-respect and is based on principles of loving and serving are provided.

Keywords : Japanese Colonial Period, Nursing Missionary, Life, Care.

1. 서론

서서핑 Elisabeth J. Shepping(1880~1934)
(독일식)엘리제 요한나 쉐핑 Elise Johanna
Shepping

서서핑은 미국장로교 해외선교위원회의 파송을 받아 1912년 3월에 한국에 와서 1934년 6월에 마지막으로 생명을 다하기까지, 한국인을 위해 몸과 마음과 모든 소유를 바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간호선교사이다. 천지간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인간본연의 참 모습을 회복하고자 이방인의 땅 조선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정회원, 한일장신대학교 간호학과
접수일자: 2015년 7월 13일, 수정완료일자: 2015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12월 8일

Received: 13 July 2015 / Revised: 12 November 2015

Accepted: 8 Dec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yoonhospace@hanmail.net

Dept. of Nursing, Hani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Jeon-Buk, Korea

타자의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거룩한

섬김의 사역을 마치게 된 시대의 선지자 서서평간호선교사를 알리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일장신대학교의 설립자인 서서평선교사의 생애와 빼앗긴 나라 조선의 한 시대를 위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갔던 선교사의 숭고한 정신과 선교사의 희생적 삶을 좀 더 알고자 실시되었다. 그가 보여준 정성은 이 땅의 조선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되었다. 척박한 조선 땅에서의 풍족하지 못한 삶,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가 이 민족을 밝게 비춰주는 등대지로서의 생애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역을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약속의 땅에 진입했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그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인한다.

많은 학자들 그리고 일반인들에 의해서 서서평선교사를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다. 서서평선교사, 서평선교사, 전문인선교사, 의료선교사, 의료전문선교사, 세평선교사, 서부인, 간호선교사, 간호원선교사, 의료간호선교사 등이다. 본 연구에서 서서평을 서서평간호선교사로 호칭하고자 한다.

거의 한 세기동안이나 그의 삶과 생애가 묻혀있었던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한 단어가기도 하다. 서서평간호선교사가 가장 많은 일을 하였고 인생의 황금기인 30~50대의 젊음의 생애를 보냈던 이 시기는 어둠의 역사 즉 일제 36년사가 시작되는 한일 합병(1910)이 있고 난 직후의 초시(初時)부터이다. 조선의 문화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모든 물자들이 강그리 짓밟히고 수탈되었던 일제식민지 시기의 중·후반기에 일이고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국여성인 서서평간호선교사의 생애는 참으로 숭고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알 듯 조선왕조 500년을 마감하면서 조정을 비롯한 국내외 정세가 첨예하게 작동하면서 먹이쟁탈전이 벌어지던 조선 땅, 구한말의 역사가 진행되던 그 즈음에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조선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평생 보여준 백의의 천사 서서평간호선교사!

최근 서서평간호선교사의 삶을 알게 해주는 소수의 문헌들이 연구되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특별히 2014년 한일장신대학교에 간호학과가

신설된 것은 서서평간호선교사와 관련한 많은 부분, 특히 간호선교사로서의 서서평을 이야기하기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적 관점과 간호학적 관점에서의 서서평간호선교사의 생애와 연관하여 조명하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서서평간호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한일장신대학교의 교훈인 진리의 탐구, 자유의 구현, 사랑의 실천을 기반으로 서서평간호선교사에 대한 이해와 한일장신대학교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한 간호학의 미래지향점을 상고해 보고 그의 섬김의 삶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선교

1) 서서평간호선교사에 대한 이해

서서평간호선교사의 유소년시절을 대하면서 교회사 중에 생각나는 것 한 소재가 있다. 남유다 왕국이 패망하면서 BC 586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일단의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이방인들 사이에 흩어져 나그네 삶을 살다가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가 BC538년에 고레스 대왕의 칙령으로 본국귀환을 할 때 유대인공동체 가운데 일부는 자발적으로 유배지에 머물러 살았다. 물론 나라 잃은 서러움과 이방민족들의 조롱거리는 참으로 견딜 수 없었던 육체적 고통이요 크나큰 정신적인 아픔으로 남아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훗날 복음의 디딤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디아스포라의 처절한 삶이 복음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했었겠는가?

서서평간호선교사의 유소년기와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장환경은 그렇게 유복하지 못했다. 한 아이가 성장해갈 때 부모의 역할이란 그 아이의 성장에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서서평간호선교사는 1880년 9월 26일 독일에서 태어나 한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미국으로 떠나버린 뒤 할머니 손에서 양육되었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9살 때 홀로서 미국으로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와 재회한 후 19살(1899년)에 뉴욕에서 가톨릭배경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21

살(1901년)에는 성마가병원 간호학교를 졸업하였다. 청년이 되어 서서평간호선교사는 동료 간호사의 권유로 개신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 복음주의적 확신을 갖게 되었고, 결국 로마교회를 떠나 개신교도가 되고 이것이 결국 어머니와 결별의 원인이 되었다. 24세(1904년)에 뉴욕에 있는 성서교사훈련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동안 뉴욕시에 있는 유대인 결핵요양소(Jewish Sanitorism)에서 병든 자를 돌보았고 이탈리아 이민자 수용소,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정거장에서 여행객을 돕는 선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였다[1]. 이러한 극한 상황이 서서평간호선교사로 하여금 간호와 선교를 동시에 결심하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를 둘러싼 질곡과도 같은 상황이 그로 하여금 간호선교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다. 수많은 인생과정의 시련 속에서도 천운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훗날 개신교 신앙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었고, 그 신앙의 힘으로 성장과정에서의 열악하고 험난한 환경을 극복함으로써 주어진 간호사의 책임과 선교사의 숭고한 사명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백춘성은 『천국에서 만남시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태어나서 남들처럼 아버지 한번 불러본 기억도 없다. 어버이 없이 자라다가 미국에 까지 와서 겨우 찾은 어머니마저 이러니 사지가 오돌오돌 떨렸다. 서평은 이렇게 어머니에게 추방을 당하는 충격에 이제는 오직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는 결심이 섰다[2].’

아무래도 가정교육 및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라난 사람이 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일수도 있으나 서서평간호선교사의 일생을 보게 되면 예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수 없는 서서평간호선교사는 오히려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그의 관심과 시선을 하늘에 둘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에서 웅골찬 마음을 갖고 희생적 결단으로 차원 높은 소중한 인생의 전반을 조선에 쏟아 부을 것을 각오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초창기 선교활동을 할 때 조정(朝政)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관료들의 협력을 받아 학교와 병원선교를 병행하면서 대체로 경제적 생활수준은 우리

나라 잘 사는 국민수준이라 말할 수 있겠다. 그에 따라 일부 경제적 상위계층에 어울리는 삶을 기반으로 한 선교는 그 방식도 민중 속으로 낮아져서 민중과 어울림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소 유리되어진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물질적 후원의 양태로 선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상위계층에 어울리는 삶을 기반으로 한 선교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서서평간호선교사의 삶은 매우 독특하였다. 그의 삶은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섬김과 봉사의 헌신적 삶이었다. 자신이 먹기 위해 가져온 오병이어를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 선뜻 내놓았던 어린아이, 그 아이의 속마음은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한센환자들, 길거리 거지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어주고 자신의 옷을 입혀주고 재워주고 했던 가난하고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에 대한 그의 헌신적인 섬김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게다가 내륙에만 머물지 않고 제주도까지 가서 달구지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다. 어떻게 하든 소외된 지역으로, 어떻게 하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전해야 한다는 일념과 열정으로 평생을 살았던 서서평간호선교사[3]는 껌테기만 남기고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참 사랑이 아니면 어찌 그 일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제기되어진다. 그리하여 자신은 두 벌 옷밖에 없었다니 그는 하나님나라를 위해 헌신과 희생적 삶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갔다[4].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서 총체적 돌봄을 실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간호와 선교사는 얼핏 생각하기에 순결이미지와 축복이미지를 담고 있어서 간호선교사의 이미지는 외양(外樣)적으로는 더 없이 행복한 전문인 직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있는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삶의 끝자락에서 모질고 병약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소진된 삶이었으리라 여겨진다. 국가 또는 작게는 지역사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그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소중하고 값진 일임에도 거절당하는 등의

실망과 좌절의 순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1915년 간호선교사역 초기인 군산에서의 <간호양성소>설립요청을 거절당한 것이나, 스푸르 감염(spure, 한국의 소화기계 풍토병)으로 인해 평생 병약한 상태로 살았던 일, 결국 선교사의 사인도 spure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전해지고 있다[2]. 또한 조선반도의 한센환자를 돌보면서 한센인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삼았을 정도로 예수사랑과 헌신의 삶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이에게 큰 교훈이 되었으며 서서평간호선교사의 삶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2) 선교의 이유와 여성선교

선교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기도 하다. 물론 그 선교는 자신의 선교도, 교회의 선교도, 그 어느 누구의 선교도 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일 뿐이다. 눈에 보이는 활동은 인간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이므로 언행심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가능한 선교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서서평간호선교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아무나 실행해 옮길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선교활동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서서평간호선교사와 다른 동료 선교사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말이 통하는 극히 일부 선교사를 제외하고는 한국문화를 그대로 적용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서서평간호선교사와 한국문화에 적응코자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한국사회에서 다소 으스스대고자 했던 많은 선교사들과의 갈등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그 갈등관계를 넘어서 선교사들 세계에서 서서평간호선교사를 소외시키는 정도까지 상황이 좋지 않기도 했다[2].

그러한 극한상황 속에서 도리어 한국인처럼 살았던 서서평간호선교사에게는 여성으로서의 활동의 제약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남성의사가 아닌 여성간호사로서의 한계로 인하여 무한헌신의 기회를 상당부분 박탈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평간호선교사는 여성의 활동한계의 극복과 정체성회복에 대한 간절함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다. 1921년 남장로교 선교부 제 30차 연례 회

의록에 의하면 서서평선교사는 광주 지역 동, 남부구역 전도와 여자 성경공부반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여성들의 전도와 교육에 힘을 썼다. 특히 여성 성경공부반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여성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의 회복 및 자아 존중감과 인격의 중요성을 점점 회복해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으로서의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깨닫게 한 것은 실로 큰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여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서서평간호선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종래 기부자의 뜻에 따라 불우한 여성의 교육을 위한 이일학교(Neel Bible School)가 탄생이 된다. 이일학교를 통하여 보다 진전된 교육의 구체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더불어 협소한 교육공간의 확대에 대한 바람과 소망으로 학교확장에 대한 노력이 안팎으로 진행되었다. 이 일학교는 1961년 3월에 전주의 초급 성경학교인 한예정성경학교와 합쳐져서 오늘날 한일장신대학교의 모체인 한일여자신학교가 되었다. 서서평간호선교사는 당시의 여성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나라도 그 나라의 여성들 수준 이상으로 자라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 말이 맞다면 한국의 여성들을 적절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할 일들이 여전히 많다. 오늘 십대의 한국 여성들은 여성의 미래가 되며 내일의 한국 어머니가 될 사람들이지만 동시대의 기독교 국가들의 여성들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 가난한 가정 출신이든지 부유한 가정의 출신이든지 그들의 차이를 줄이는 것 그리고 그들을 깨끗하고 온전하며 건강한 삶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기독교 교육자들이 당면한 문제이다[5]."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반부에는 여성이 선교대열에 참여하기란 여의치 못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참여할 만한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선교어둠의 시대였다. 하지만 서서평간호선교사는 의료전문인이었으므로 적극적인 선교사역이 가능했었으리라고 본다. 사실 여성선교란 그 용어 자체가 거의 사용되지 않던 시절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성들에 의해 거절되기까지 하던 그 시절의 여성선교는 더더욱 어려운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평간호선교사는 여학

생들의 자활능력을 피하게 하여 배우고 일하는 즐거움 속에서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남장로교 선교부의 명을 받아 이일성경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던 서서평간호선교사의 1927년 연례보고서를 보면 그의 이일학교를 향한 사랑과 여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나의 가장 커다란 바람과 소망은 이일성경학교의 확장과 융합이다. 교회사역을 위한 여성교육의 필요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이 학교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날마다 자라나기를 소망한다. 수백 명의 한국인 친구들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이 학교가 기독교적 성품과 주님을 위한 봉사를 훈련시키는 위대한 센터가 될 것이라 소망한다[6].”

초대 간호협회장을 역임한 김모임은 서서평간호선교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였으며 인간을 사랑하는 간호를 바탕으로 선교에 힘을 썼고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등 육영사업, 육아사업, 부인조직회와 금주동맹 조직과 운동, 윤락여성과 빈민 구제사업을 하였으며 우리나라 개화기에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여성이 교회에 나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여권신장에 기여하였고, 한국여성운동의 개척자인 동시에 나이팅게일의 참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였다[2].

이와 같이 여성선교의 길이 차츰 열리게 된 것은 그나마 여성스스로의 하나님을 향한 지고한 섬김의 몸부림에 발로였던 것이다. 동일선상에서 그야말로 조선반도의 고집스런 폐쇄문화를 깨면서 선교의 구령을 들고 분연히 일어섰던 서서평간호선교사는 사막과도 같은 조선 땅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였다.

2. 한국간호와 한일장신대학교 간호학과의 미래지향점

1912년 서서평간호선교사의 초기 선교사역은 광주 제중원과 군산구암예수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였으며 특별히 나병환자들을 정성껏 돌보았다. 길에서 여자 나병환자나 거지들을 만나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목욕시키고 밥을 먹여 대접 해주었다. 1917년부터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업무와 간호사 교육과 훈련의 일을 병행하였다. 1920년 이후 건강상의 문제로 광주로 이동하여 요양하면서도 병원을 돌보았고, 지역사회를

순회하면서 방문간호와 공중위생 등 보건간호 사역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는 선교초기부터 간호사로서 병원 업무 외에도 사회봉사와 긴밀하게 연결하였으며, 사람들은 너무 무지하거나 두려워서 또한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치료사역으로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예방사역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7]. 일제강점기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직 조선의 간호가 세계만방에 알려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1923년 조선간호부회 결성을 주도하여 초대회장에 선임되었고, 그로부터 11년 동안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간호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그리고 한국간호와 교육, 행정, 조직 등 물질,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 하였다. 그의 국내·외적인 노력으로 조선간호부회를 국제간호협회(ICN)에 가입신청과 일본 적십자 간호협회에 가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한국어에 능통하여 저술가, 번역가, 편집인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할 수 있는 간호 교과서, 실용 간호학, 간호요강, 간이 위생법, 간호사업사 등 간호학 번역서를 책으로 냈다[8].

서서평간호선교사의 삶의 완성은 한국에서의 22년 동안이었으며 이 기간의 삶은 인간의 역량을 초월한 상상하기 어려운 인생의 최대사건이자 한국간호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여겨진다. 그는 처녀간호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와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차별받는 여성들과 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장애자와 한센환자를 돌보며 22년 동안 불꽃같은 삶을 살았다. 그리고 성경교사로서 이 땅의 수많은 여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자, 교육자, 간호사를 양성하였으며 사회사업, 구제사역에 집중하였다. 서서평간호선교사는 1912년 일제강점기 인생의 최고봉인 나이 32세에 조선에 몸을 드리운 채 꺼져가는 민족과 백성의 운명을 일으켜 세우는데 삶의 전부를 아낌없이 바쳤다. 그의 모든 열정과 섬김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는 오랜 질병과 과로 그리고 영양실조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9].

서서평간호선교사의 삶 속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측면에서의 총체적인 간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있다.

한일장신대학교의 설립자인 서서평간호선교사를 기리며 간호학과가 신설된 지 세 번째 해를 맞이한 2016년은 개교 94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간호사 양성이 그의 희망이었으며 그토록 절박하게 필요하여 선교본국에 호소했던 그의 꿈이 오늘 이곳에 이루어진 것에 꼭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한일장신대학교는 서서평간호선교사의 정신과 실천적 삶의 흔적이 서려있는 결정체라고 본다. 가난한자와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일제간계(日帝奸計)에 나라를 빼앗기고 온 국민이 노예처럼 살던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교육자로서 민족의 등불이 되어주었던 그의 발자취를 찾아 거룩한 간호사역을 뒤따라가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서서평간호선교사의 헌신적인 돌봄과 사랑의 실천을 조명하면서 한일장신대학교 간호학을 포함한 한국간호의 미래지향점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한국간호가 세계무대로 확장되기 위해서 외국어 능력향상과 국제간호교육으로 해외진출의 기회를 확대해야 하겠다.

둘째, 국내외 지역의료봉사 및 의료선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해외 병원 및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국내외의 간호전공영역에서 간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간호선교를 위한 준비과정과 국제간 교류가 필요하겠다.

셋째, 대학의 이념인 인성·영성·지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전인간호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호스피스 간호, 영적간호 및 전인간호교육을 통해 인간존중사상과 전인간호실현에 기초를 다져야 할 것이다.

넷째, 기독교대학교의 정체성에 걸맞게 수직적으로는 예배를 생활화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수평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온전한 섬김을 실천하여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 전문인으로 양성되어야 하겠다. 서서평간호선교사의 후학들은 이 시대에서 고통 받는 인간을 위한 돌봄 치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자로 양성되기를 기대한다. 한일장신대학교는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서서평간호선교사의 헌신이 계물로 드러진 대학이다. 그러므로 한 알의 밀알이 되었던 서서평간호선교사가 보여준 섬김의 삶을 본으로 삼고 받은 달

란트에 따라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 론

역사와 시간은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에 발 맞추어 인간의 생애 여정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당장 자신의 죽음은 먼 훗날의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본 연구자는 호스피스 간호를 통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야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돌보아주면서 인간에게 죽음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인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죽음이란 수십 년 뒤에 올수도 있지만 이번 주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주어진 고귀한 생명을 어떻게 거룩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서서평간호선교사가 조선 땅에 온지 100년이 넘는 이 시점에 또 한 사람의 서서평간호선교사가 나타나기를 기대 해본다. 그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벌써 80여년의 시간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의 숭고한 섬김의 정신과 사랑의 실천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가슴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서서평간호선교사의 장례식을 사회장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광주시민들, 그 당시 그곳의 분위기는 참으로 천국 잔치에 모험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예컨대 '식장의 맨 앞자리에 있던 거지들, 나환자들, 이일성경학교학생 등, 평생 은혜를 입고 살았던 많은 회중들의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서서평간호선교사의 일대기의 저자 백춘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백을 헤아리는 걸인과 나환자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고 뒤를 따르는데 비행기소리외도 같은 울부짖음에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평양과 서울에서도 많이 왔고 여기에 참여한 조객들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간에 전부가 저고리 소매에 검은 완장을 들었으며 인파는 오원기념각에서 뒷동산 묘지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광주 유사 이래 처음 갖는 사회장이었다[2].”

루소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고 했다. 서서평선교사의 생애와 삶을 단언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자와 같은 생각을 한 Nichola의 글이다.

“과연 우리가 저런 분의 백분의 일이라도 따라할 수 있을까 자문해봅니다. 그러나 선뜻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사명감, 의지만 갖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천사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10].”

"호흡만 거두면 시체를 해부하여 연구 자료로 삼으십시오"라는 말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한 서서평간호선교사,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거지 등 사회에 버림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계층에 관계없이 많은 이들이 그곳에 모였고 한센환자를 도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역시 그들도 선교사촌에 몰려들었다. 서서평간호선교사를 더욱 기억나게 하는 일은 광주시민들 중 많은 불신자들까지도 장례식을 광주시민장(사회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8].”

세상의 명예도,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서서평간호선교사, 그 헌신적 섬김은 호남지역 복음화의 뿌리가 되었다고 본다. 그녀가 떠날 때 남기고 간 전 재산은 담요 반장, 쌀 두 홉과 7전이 전부였다 하지 않았던가? 부자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나눔과 베품을 통한 무소유의 가치와 필요성(마19:16-22, 막 10:17-22)에 따라 서서평간호선교사는 모든 것을 조선인을 위해 살아갔던 진정한 무소유의 실천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실조로 고생했던 것이 아마도 당연했으리라.

2014년 3월에 한일장신대학교 내에 있는 카페에서 <서서평간호선교사의 섬김과 삶>을 돌아보는 북콘서트가 열렸다. 그리고 매년 그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의미있는 행사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동시에 반복되는 서서평선교사 관련 행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의 살아있는 진정한 정신과 모습들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의 좌우명이었던 ‘성공이 아니라 섬김 (Not success but service)이다.’ 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한다고 보며, 이제 앞으로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서서평선교사의 맑고 깨끗한 거울에 비추어 섬세하게 점검하고 그의 생전에 지향했던 섬김의 삶과 거룩한 유지(遺志)에 반하지 않고 옳은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서서평간호선교사의 삶과 간호를 떠올리면서 그가 보여주었던 전인적 간호를 이시대 한국간호에 접목시켜 나아갈 것과 그의 간호역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Yang KJ. Hey, Not Success But Service! Seoul: Serving the People; 2012.
- [2] Baek CS. Let's meet in heaven—the glorious life of Miss Shepping, missionary nurse.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1996.
- [3] Yu TJ. Miss Elisabeth Johanna Shepping as a Missionary of the Living Faith. Theology and Society. 2013;27(2):217- 272.
- [4] Choi Yk. The Holistic Mission of Elizabeth J. Shepping, R.N., Southern Presbyterian(PCUS) Woman Missionary in Korea.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2012;82:231- 261.
- [5] E. J. Shepping, "Korean high school girls," *Korea Mission Field*, vol. 24, no. 3 (Mar. 1928), 54.
- [6] E. J. Shepping, "Annual Report ," Kwangju, Korea, 1927.
- [7] E. J. Shepping, "District Nursing II." *Korea Mission Field*, vol. 16, no. 9 (September 1920), 205- 207.
- [8] Yang CS. Happiness that Served Chosun. Seoul: Serving the People; 2012.

- [9] Mrs. Knox, M. B. and Mrs. E. E. Talmage. "Miss E. J. hepping—An Appreciation." *The Korea Mission Field*, vol. 30, no. 10 (1934), 218–219.
- [10] <http://cafe.daum.net/anglican-churchYG8/464?q=%BC%AD%BC%AD%C6%F2&re=1>, 2015년 8월 29일 6:30 p.m. 접속.